해상풍력 배후단지 목포신항이냐 군산항이냐

이달 선정 앞두고 막판 유치전 후끈

목포시, 추진위 결성 8개 기관과 협약

목포 신항과 군산항이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배후 물류단지(항만) 선정을 앞두고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19년까지 영광 안마도~전북 부안 위도 해상에 총 10조2000억 원이 투입되는 2.5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풍력 기자재 운반·조립 등의 역할을 담당할 배후 물류단지(항만)는 오는 11일 공고를 거쳐 6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목포시는 지난달 21일 정계·학계·재계·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인사 100여명으로 '해상풍력 지원항만 목포 신항 유치추진위원회'를 결성한데 이어 전남도와 목포 지방해양항만청, CJ대한통운, 목포 신항만, 서남권 풍력산업협의회 등 8개 기관·업체와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돌입했다.

정순남 전남도 경제부지사, 김삼열 목포신항만 대표이사, 최태옥 이사장 등은 지난 5일 에너지 관리공단을 방문해 "목포신항 인근에 대불·용당·삼호 등 8개 부두가 있고, 조수간만의 차가 작아 연중무휴 해상작업이 가능하며, 지내력이 우수해 풍력 발전기 등 대형플랜트 작업을 하기 용이한 점 등 강점이 많다"며 신항이 최적지임을 집중 홍보했다.

또 이들은 전남지역은 우리나라 해상풍력 에너지의 60%가 위치해 있고, 인근 영광에 풍력발전 시스템 성능평가 센터가 위치해 있어 성능평가와 해상설치를 연계할 수 있으며, 목포신항은 현대삼호중공업과 DMS(주) 등 시스템을 생산 및 협력이 가능한 기업이 밀집된 점도 장점으로 내세웠다.

김삼열 신항만 대표는 "현재 군산은 배후부지가 있지만 부두가 없고, 목포는 부두는 있지만 배후부지가 없다"고 전제하고 "부두를 조성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군산 보다 목포가 유리한 고지에 있다. 신항에는 부두 야적장 33만578㎡(10만평)이 조성돼 있어 초기에는 이 부지를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상풍력 발전단지 배후 물류단지는 블레이드·터빈·타워 하부구조 등 대형의 중량 화물(길이 50m 이상·최대중량 1200t)을 보관·조립·적재·수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된다.

이처럼 해상풍력 발전기 자체가 워낙 중량 화물이다 보니 배후 물류단지가 구축될 경우 배후 물류단지 인근에 생산시설이 입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 산업의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목포신항과 물류 관련 기업은 물론 목포대까지 나서 배후 물류단지 유치전에 사활을 걸고 경합을 벌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양파수확 돕는 대학생 봉사단 농협 전남지역본부 대학생 자원봉사단원들이 영농철 일손부족 농가를 돕기 위해 무안군 청계면 복룡리 들녘에서 양파수확 작업을 하고 있다. 자원봉사단은 전남대·목포대·조선대·호남대·광주대 등 광주·전남 소재 대학생들로 구성됐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목포 2차 마리나항만 조성 용역보고회

목포시가 해양레저도시로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이끌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목포시는 7일 시장실에서 마리나항만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내항을 중심으로 평화광장 등 목포연안 전반에 총 1000척 규모의 마리나 항만을 2019년까지 조성하고, 남항 일대 해양레저 단지를 2015년까지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다.

시는 1100억원(국비 250억·지방비 250억·민자 600억원)을 투입해 목포내항과 삼학도 지선, 평화광장 등 목포연안에 걸쳐 기존 600척에서 1000척 규모로 확대하는 '2단계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레저 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2015년까지 남항 등 목포연안에 50억원(국비 50%·지방비 50%)을 투자해 부지 2만㎡에 가족형 체험존과 수상스키·제트스키 등 스피드형 체험존, 레저선박 접안시설 등의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해남 캠핑카·테마촌 인기 '짱'

휴가철 주말·휴일 80% 예약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해남군 땅끝 송호해변 캠핑카 등 해남 주요 관광지 숙박시설 예약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해남군은 "땅끝 오토캠핑카, 땅끝 황토 나라 테마촌, 가학산 휴양림 등 비교적 저렴한 공공시설은 7~8월 주말과 휴일 예약이 80% 이상 마감됐다"고 7일 밝혔다.

송호해변 오토캠핑카는 휴가철 예약전화가 지난달 초부터 이어져 이미 8월초까지 마감됐다.

황토 나라 테마촌은 8월 중순까지 주말과 휴일은 80%가량 예약됐다. 평일은 50% 정도다.

오토캠핑카는 모두 9동으로 7월과 8월 주말 10만원, 평일 8만원이다.

테마촌은 16실로 주말 5만원, 평일 4만원이며 가학산휴양림은 18동으로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숙소크기에 따라 다르다. 문의 땅끝 오토캠핑카(061-534-0830)·황토나라 테마촌(061-533-9822)·가학산 휴양림(061-535-4812)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임자 대광해변서 말 마라톤대회

8~10일 말 200여마리·동호인 1000명 참여

국내에서 가장 긴 백사장인 신안 임자도 대광해변에서 8~10일 말 200여 마리가 경주를 펼치는 이색 대회인 '제5회 전국지구력 승마대회 '가 열린다.

이번 대회는 전남도와 신안군이 주최하고 국민생활체육 전국 승마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구력 승마대회로 장애물(80·100cm)과, 지구력 경기(10·20·40km) 등 5개 종목에 생활체육 승마 동호인 1000여 명이 참가한다.

임자도 백사장은 길이 12km, 너비 300m로 전국에서 가장 길며 트럭도 다닐 수 있을 만큼 단단한 모래사장을 보유해 해변승마의 적지로 꼽히고 있다.

지난 2007년 대광해수욕장 모래해변을 국제 해변승마장으로 개장한 이래 전국 각지에서 승마동호인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 방옥길 스포츠산업과장은 "해변승마 명소인 임자도에서 사계절 승마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승마문화를 창출해 승마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초당대-롯데호텔 서울 산학협약 체결

초당대학교와 롯데호텔 서울은 최근 학생 현장실습과 인턴십 프로그램의 활성화, 취업기회의 확대를 위해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초당대 조리과학부와 항공운항 서비스학과, 경영학과 등 관련 학과와 연구센터는 관광산업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새만금방조제 1500만명 다녀가

개통 25개월만에 올 240만명 방문

새만금방조제 방문객이 개통 이후 25개월 7일만에 1500만명을 넘었다.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2010년 4월 27일 개통 이후 3일 현재까지 1502만6090명이 새만금 방조제를 방문했다. 1000만명을 기록한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만이다.

올해들어 5월말까지 240만명이 방문했으며, 앞으로 휴가철과 가을 향락철이 지나면 전년 방문객 이상이 새만금을 다녀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새만금 방조제에서 시작하는 고군산 연결도로 공사가 내년 말 완공되고, 고군산 군도 개발과 신시·야미도리 일원의 '메가 리조트' 개발사업 등 휴게시설이 설치되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새만금 방조제의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신항만 공사는 오는 14일 새만금 33센터 광장에서 착공될 예정이다. 이번 공사는 동북아 물류 허브단지 구축을 위해 국내 최초로 인공 섬식 개발방식을 도입, 새만금 내부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대산 큰별 작은도서관 개관 고창군 대산면 지역 어린이들이 7일 대산면 주민자치센터내에 문을 연 '대산 큰별 작은도서관'을 찾아 책을 읽고 있다. 〈고창군 제공〉

남원 시내버스 일부노선 10일부터 변경

남원 시내버스 일부 운행시간과 노선이 10일 0시부터 이용자 중심으로 변경돼 운행된다.

노선이 조정돼 운행되는 곳은 13개 노선으로, ▲증회운행 41회 ▲감회운행 4회 ▲시간조정 1회를 변경해 운행하게 된다.

주요 변경된 노선은 대중교통 활성화와 통학생 불편 해소를 위해 출근시간인 오전 8시대와 퇴근시간인 오후 6시 대에 노암 농공단지 운행을 개시하고, 남원여고와 성원고 방면 등교시간대 운행을 하게 된다.

또 이용자 불편노선 조정과 연장운행을 위해 ▲운봉읍 소석마을 및 방현마을 2회 증회 운행 ▲이백면 목가마을 및 효촌마을 2회 증회 운행 등을 하게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노선조정은 시내버스 이용 불편해소와 주요지역 또는 마을간 연계성을 유지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전북도, 농촌유학 1번지 만든다

7~8월 팸투어·설명회, 10월 박람회
시골 소규모 학교·농촌 마을 살리기

전북도가 시골 소규모 학교와 농촌 마을을 살리는 농촌유학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도는 "광역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도시 학생이 6개월 이상 부모와 떨어져 정규 과정을 다니며 시골체험을 하는 농촌유학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전북을 농촌유학의 최적지로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 법무과에 전담직원 배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실시 ▲홈페이지 운영 ▲유학 설명회 개최 ▲농촌유학 박람회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지역농가와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촌유학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예산 8000만원을 확보했다.

도는 농촌 유학을 통해 농외 소득사업 정착과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지역 전문가를 양성해 고용창출 등을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도는 7~8월 중 도시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팸 투어와 초청 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 중에는 '전국 농촌유학 박람회'를 연다.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 추진 등을 통해 농촌유학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교사 육성교육도 한다.

도는 KTX와 서울시 지하철 전광판을 이용해 '농촌유학은 전북이 최적지'임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 전략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전북도의 경우 농촌유학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경쟁력을 이미 갖춘 상태이다.

도시 학교의 대안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시골 유학에 대한 학부모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현재 도내에는 수도권에서 온 72명의 유학생이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또 전국 35개 유학시설 중 실제 운영하는 17개소 가운데 절반이 넘는 9개소가 전북에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전북은 전국 최초로 산촌 유학을 시작한 지역으로 ▲폐교위기 학교 활성화(임실 대리초) ▲귀농사례 증가(정읍 수곡초 주변농가 20가구) ▲농외소득 사업화(장수 철딱서니 학교) 등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국가산업단지 근로자 통근버스 운행

군산국가산업단지내 근로자를 위한 통근버스가 최근 개통식을 갖고 시범운행에 들어갔다.

버스운행은 국토해양부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을 허용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버스 운영기간은 연말까지며, 사업비 1억6700만원을 들여 25인승 버스 8대를 임대해 사용한다.

군산산단 경영자협의회 주체로 운영되는 통근버스는 8개 노선, 1일 평균 19개사 근로자 170명이 이용할 예정이다.

노선은 구암 현대아파트, 시외버스 터미널, 월명종합경기장에서 각각 출발해 시내 주요 지점을 거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단신

군산 '철새 도래지쌀' 12t 日 수출

군산시 대표 브랜드쌀인 '철새 도래지쌀'이 또 다시 일본 수출길에 오른다.

7일 군산시에 따르면 제희RPC(대표 한건희)에서 생산하는 '철새 도래지쌀' 12t이 8일 광양항을 통해 일본에 수출된다. 이는 지난 2011년 11월에 12.5t을 수출한 후 2번째 수출이다. 이번에 수출되는 쌀은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전량 소비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수출국을 확대해 쌀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익산시 '행복한 가정상' 8가정 선정

익산시는 최근 '제5회 행복한 가정상' 수상자를 선발했다.

'행복한 가정상'은 ▲다복한 여성상 ▲화목한 가정상 ▲행운가득상 등 3개 분야 총 8가정을 선발했다. '다복한 여성상' 수상자는 5자녀 이상을 출산해 양육하는 4명의 여성이고, '화목한 가정상'은 3대 이상 동거하는 세대 2가정, '행운 가득상'은 2쌍둥이 이상 가정·입양가정·다문화가정 중 2가정을 선발했다. 시상식은 오는 7월 3일 솜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제17회 여성주간 행사'에서 열린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국립 민속국악원 충남 순회공연

국립 민속국악원은 8일 충남 서천군 서도초등학교에서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 공연하는 '국악을 국민속으로' 공연을 펼친다.

공연은 국립 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의 기악합주 '신 뱃노래'와 민속무용 '진도 북춤', '태평무', 판소리 입체창 '심봉사 목욕하는 대목' 등 다양한 전통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번 초등학교 순회공연은 전통예술 공연 관람을 통해 청소년에게 흥미를 유발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국악 교육을 한층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고창군 FTA 과실유통지원 평가 최우수

고창군은 최근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의 FTA기금 과실생산유통 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생산시설 사업비 15억원의 30%에 해당하는 4억5000만원 증액과 자율계획수립 지원비 1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군은 (주)고창 황토배기 유통과 참여조직(고창 배 영농조합·고창 황토복분자 영농조합)과의 협조 등을 통해 출하약정 이행률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